



# 언제 봐도 청량하고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조영명 감독**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최근 들어, 대만의 로맨스 영화가 ‘청설’ (2024), ‘말할 수 없는 비밀’ (2025)에 이어 지난 주에 개봉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 이르기 까지 리메이크 붐을 이루고 있다. 필자가 중학생이었던 시절에도 대만 영화 ‘수잔나’가 수입되어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있다. 여학생들은 당시의 주연배우 리칭을 선택하고 OST가 또래에게 큰 인기를 끌며 알지도 못하는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보면 하이틴 로맨스 장르는 대만이 강세인가 싶기도 하다.



조영명 감독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주)영화사테크 제공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구바즈 감독이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2006년에 출판한 소설이다(우리나라에는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2017년에 번역출판). 그 후 직접 연출한 성장 로맨스 드라마 장르의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2011)가 원작 영화다. 2018년 일본에서 ‘그 시절 너의 뒤를 쫓았다’라는 타이틀로 리메이크한 전력이 있을만큼 아시아권에서는 알려진 영화다. 조영명 감독의 한국 버전 리메이크 판은 원작의 배경인 1994년 대만의 장

화에서 2002년 한국의 춘천으로 훌쩍 건너뛰었다. 일본에서건 한국에서건 리메이크가 가능한 것은 청춘들이 성장기에 겪는 첫사랑 증후군이 시·공을 초월하여 있게 마련이어서다. 그리고 이것은 빛바랜 앨범 속 한 권에 들어 있는 낡은 사진처럼 추억 속에서 꺼내어 들여다보는 무해한 공감의 정서가 유사해서 일지도 모른다.

월드컵으로 온 국민을 환호하게 만들었던 2002년 여름, 고2 교실에는 제각각 말썽을 피우고 한창 짓궂은 개구쟁이 남학생들에게 일치하는 견해가 있다. 전교 1등인 반장 오선아(배우 다현)가 여신으로 보일 만큼 ‘예쁘다’는 것. 다시 말해, 모범생 선아는 많은 남학생들의 뮤즈인 것이다. 철없고 장난기 많은 구진우(배우 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다 걸린 진우는 선아의 앞자리에 앉아 선아의 특별 감시를 받는 벌을 받게 되면서 선아와 가까워지고 그 덕에 공부를 시작한다.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면 고백하리라는 원대한 꿈을 품은 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절의 10대들도 수능과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한다.

대사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단언코 ‘그때는 몰랐지만 수능과 대학입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수능을 망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하는 선아에게 위로를 어떻게 해줄 줄 몰라 서툰 표현을 하는 진우, 그의 고백이 귀에 들어올 리 없는 선아. 진우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단지 선아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올려 눈을 덮고 말하듯 할 뿐이다. 사랑스럽기 짝이 없는 신이다. 이 영화는 이런 신이나 노련하지 않아

보이는 신선함이 가득하다. 알고 보니, 소재가 첫사랑이듯 새내기 감독의 첫 장편영화 데뷔작이었다. 각본을 한국적 상황과 정서에 걸맞게 각색한 김진경 작가가 역시 방송 구성작가에서 영화로 갓 넘어온 바라 단탄한 기반 위에 ‘첫’이란 관형사가 만들어내는 생동감이 있었다. 김진경 작가의 신선한 어휘력이 정신향을 더했다는 생각이다.

B1A4 출신 가수 진영의 출연도 뉴 페이스가 주는 청량감이 있었지만, 트와이스 출신 배우 다현은 데뷔작이다. 이들 아이돌 출신의 출연 작품이라는 소식은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단시간 매진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한다. ‘첫사랑’이란 누구에게든 풋풋하고 청량한 어감이다. 설렘 못지않게 가슴 아픈 애환함과 어설픈 아쉬움이 마땅히 따르게 마련인. 그래서 개인의 드라마가 성립되는 것이다.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의 상상도 개개인의 몫이지만, 이 영화는 그 ‘만약...’도 덧입혀 놓는다. 매우 코믹한 설정으로, (실상 코믹을 뺀 로맨스는 감성의 골이 깊어져서 개인적으로 덜 반기는 편이다. 필자로서는 로맨스보다는 로맨틱 코미디가 좀더 다채롭다 생각하는 쪽이라서.) 원작도 그랬지만 원작에 충실한 이 영화도 엔딩이 주는 코믹 타격감이 있다.

“나도 널 좋아하던 시절의 내가 좋아.” 진영의 대사 중 한 대목이다. 첫사랑이란 감성은 어찌면 나를 위한 나의 것이다. 사랑이란 감정도 정서도 종국에는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 만족감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은 사랑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단계 성장하고 큰 의미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는 발판이기도 하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 기업하기 좋은 광주 함께 만들어야

**기고**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이는 초나라 장수 항우가 전투에서 도망칠 수 없도록 스스로 술을 깨고 배를 가라앉혔던 고사에서 유래했다.

전장에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비유한 말이다. 지금 우리 광주는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전 세계가 보호주의 파고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정책 기조하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에 10% 관세인상 조치를 취하였고,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어서 유럽, 일본, 한국 등에 대한 관세인상과 함께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 조치들은 자동차 및 부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인 우리 광주의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연말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는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내수 침체를 가져왔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광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

라 다른 지역보다 소비위축이 더욱 심각하여 경제활력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가계는 소비지출을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비의 그릇을 키우고, 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슈퍼추진을 요청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다.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리고, 외부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광주로 오도록 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활성화되려면 광주시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광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정주여건, 교통, 물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입주, 설비, 고용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와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 차별화된 기업활동 지원제도 역시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도 잘 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업활동을 지지하는 친화적인 문화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야 되는 일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친화적인 풍토와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 덴마

크에는 에이피몰러머스크(A.P. Moller Maersk)라는 최대 재벌그룹이 있다. 이 그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물자 해상운송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현재 세계 최대 운송회사인 머스크라인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그룹은 운송은 물론 제조, 유통까지 소위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덴마크 국민들은 이 그룹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우여곡절과 노력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로 보인다. 에이피몰러머스크 그룹은 지배구조와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종업원과 시민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연대와 상생의 노력 때문일 것이다.

광주를 한번 살펴보자. 우선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를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은 개별의 이익에 앞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과연 기업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5·18 당시 우리 광주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분연히 맞서 싸웠다. 이제 이러한 5·18 정신을 승화시켜 기업과 노동자, 시민이 하나가 되어 보다 더 잘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연대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45년 전 모든 광주 시민이 하나 되어 광주를 민주주의의 성지로 만들었듯이 이제는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굳은 결의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더 잘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사회

**취재수첩**

 **윤준명**  
취재2부 기자  
junmyeong.yoon@jinilbo.com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7)양 피살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양은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있던 중 참변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돌봄 교사였다. 김양은 학교 시청각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김양의 아버지에게 현장을 보지 않게끔 만류할 정도로 상황은 참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해교사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휴직했다가 복직한 상태로 사건 발생 전부터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의지를 던지는 등 이상 행동을 반복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다.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가 업무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복직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참극이 전해진 후 며칠간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할 아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들마저 깊은 슬픔에 잠겼는데, 사랑하는 아이를 한순간에 잃은 유족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하굣길 참변과도 오버랩된다. 지난해 10월30일, 광주 북구 신용동에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인도에 진입한 5톤수거차량이 후진하던 중 하교하던 김모(7)양을 치었고, 김양은 큰 부상을 입고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김양은 사고 직전

어머니와 “수업이 끝나 귀가 중”이라는 내용의 통화를 했지만, 끝내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걱정된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 보니, 김양의 신발과 가방이 수거차량 밑에 놓여 있었고, 현장을 확인하려던 어머니는 그 참혹함에 구급대원들에게 만류 당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공통적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유족과 인근 주민들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데도, 차량들이 오랜 기간 인도 위에서 작업을 해왔다”며 “언젠가 한번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아파트 측은 사고 후에야 차량의 인도 위 진입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했다.

모든 사고가 그렇겠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는 아이들의 불행에 막을 많은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해당 교사의 복지 신청에 대해 업무 수행 능력을 더 면밀히 검토했다면, 인도를 진입하는 수거차량의 작업 방식이 안전한지 누구라도 점검했다면, 이와 같은 참극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유족은 큰 슬픔 속에서도 “제2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전망이 사후약방문식으로 구축된다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극을 막을 수 없다. 하늘의 별이 된 두 아이에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는 사회 전 분야에서 철저히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뿐일 것이다. 집을 나선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